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총력

윤 최형순 기자 | 2026.02.13 23:29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조성명)가 설 명절을 맞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에 박차

세종대전금산지사는 지난 12일, 금산군 인삼전통시장과 남일면 일대, 세종시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거점을 방문해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농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기존의 농지연금과는 차별화된 제도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양도(이양)하여 농촌의 세대교체를 돕는 대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산군 인삼전통시장과 남일면 일대, 세종시 전통시장 등

보조금은 1ha당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4ha 기준 최대 월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에게서는 평생 헌신해온 농토를 내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명예로운 은퇴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에게서는 우량 농지를 우선 공급하여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명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평생 일궈온 소중한 농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농촌의 미래를 여는 상생의 제도”라고 강조하며, “기존 농지연금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세종대전금산지사를 방문하거나 대표 전화(044-860-3310)를 통해 가능하다.



최형순 기자